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수산연구본부	성명	정명화	직급	연구위원
		기획조정본부		윤미경		전문연구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해양포유류보호 등 수산분야 국제규범 대응전략 수립 연구」(수탁) (사업기간 : 2024.9.11. ~ 2025.9.30.) ※ 정명화 연구위원은 페루에서 제5차 한중남미수산포럼 참석(9월 4~5일) 후 미국 워싱턴에서 대표단과 합류 예정(리마-워싱턴-인천-부산 항공편_일반사업/수탁과제에서 지출)					
출장기간	2025.9.6.(토) ~ 2025.9.11(목) (4박 6일)			출장지	미국(워싱턴 DC)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9.6.(토)	리마(-1 23:20) → 아틀란타(07:06) → 워싱턴(11:20)		항공 이동		DL150 DL380 (정명화)
		부산(07:00) → 인천(10:25) → 워싱턴(13:15)		항공 이동		KE1402 KE093 (윤미경)
		더블트리 호텔 회의실		미 MMPA 전문가 자문회의		
	9.7.(일)	더블트리 호텔 회의실		한-미 정례협의회 대응 실무 전략협의		
	9.8.(월)	NOAA		한-미 정례협의회 (RFMO 협의)		도보 이동
	9.9.(화)	NOAA		한-미 정례협의회 (MMPA 협의)		도보 이동
	9.10.(수)	워싱턴(13:15) → 인천(+1 17:40)		항공 이동		KE094
	9.11.(목)	인천(19:35) → 부산(20:45)		항공 이동		KE1409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목적 1) 한-미 정례협의회 (RFMO 협의) - (목적 2) 한-미 정례협의회 (MMPA 협의) - (추가) 미 MMPA 전문가(전 NOAA MMPA 팀 팀장) 자문회의 - (달성 정도) 당초 목적 달성 ○ 주요 성과 - 한미 정례 국제어업 협의회 성공적 개최 - IUU 어업 근절 및 RFMO 대응 협력 MOU 논의(2025.12 UN총회 서명 추진) - UNOC4(2028년 한국·칠레 공동개최) 미국 지지 요청 - 미국 MMPA 수입규제 시행규칙 추진 현황 및 향후 대응 방향 확인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해양수산부 유관기관(수품원 등)에 협의 사항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해양포유류보호 등 수산분야 국제규범 대응전략 수립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 - 2026년 MMPA 수입규제 대응 방안 마련시 반영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해당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9.6.(토) 미 MMPA 전문가 자문회의 (추가 수행)
수행계획	☐ (오후) 미 MMPA 전문가 자문회의 - 참 석 자 :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윤미경 전략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지영 통역사 (Sea Shepherd) Nina Young 컨설턴트 - 주요 내용 · 동등성 평가 발표와 의의 · 한국 동등성 평가 결과 분석
수행결과	☐ (오후) 미 MMPA 전문가 자문회의 - 자문위원 전문성 · 전 NOAA MMPA 팀 팀장으로 역임 · 정년 퇴직 후 NGO(Sea Shepherd) 컨설턴트로서 MMPA 관련 컨설팅 수행 - 동등성 평가 발표와 의의 · NOAA Fisheries가 2025년 MMPA 규정에 따라 발표(8.28), 46개국 240개 어업 부적합으로 미국 수입 제한(2026.1.1.부터) · 전체 결과: 135개국 2,500개 어업 평가. 일본·캐나다 등 89개국 전부 적합(승인), 한국·중국·멕시코 등 34개국 부분 적합(부분 승인), 러시아 등 12개국 전부 부적합 · 일본: 모든 신청 어업 적합. 해양포유류 의도적 살상 금지, 허가·모니터링·보고 시스템 운영. 상괭이·흑등고래 혼획 발생하나 부수어획 허용 한도(PBR) 미초과. 상업적 어업 보호 조치가 미국 규제에 준함 · 캐나다: 모든 어업 적합. 해양포유류 보호 조치가 미국 MMPA 프로그램과 동등 수준으로 평가. 모니터링·보고 체계 및 혼획 저감 조치 효과적 · 대만: 51개 어업 중 50개 적합, 1개 부적합(멸종위기 흰돌고래 관련 유자망 어업: LOFF 890). 흰돌고래 사망·부상 보고·모니터링·저감 조치 증거 불충분 · 멕시코: 76개 어업 중 55개 적합, 21개 부적합(예: 잭방어 자망·채낚기, 멸치 선망, 새우 트롤, 상어 연승 등: LOFF 1720 등). 바키타 돌고래 보호 미흡, 공유 자원 혼획 저감 효과 부족 · 중국: 51개 어업 중 47개 적합, 4개 부적합(멸치·갈치 안강망, 꽃게 자망, 멸치 들망·채낚기: LOFF 721 등). 상괭이 혼획 유발 어구 사용, 저감 조치·자료 부족 · 러시아: 모든 어업 부적합. 의도적 살상 금지 규정 불명확, 신뢰할 수 있는 보고·모니터링 프로그램 부재, 혼획 저감 조치 미비 - 한국 동등성 평가 결과 분석 · 한국: 141개 어업 중 127개 적합, 14개 부적합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어업은 대부분 상괭이·참돌고래 등 PBR 25% 초과 · 혼획 저감 조치 미이행, 현행 조치로 기준 충족 어려움 · 혼획 저감: 어업인 교육, 방류 가이드, 생분해성 어구 등 자율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주로 혼획 및 거래되는 밍크고래 혼획 저감을 위한 탈출구 개발 검토 필요 · NGO 정보: CBD, NRDC, AWI 등에서 상괭이 혼획 국제적 문제 지적 - 종합 평가 · 한국, 부적합 어업 개선 위해 제도적·기술적 보완 필요(혼획저감장치 의무화, 옴서버 데이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확보) · 해외 사례(일본-캐나다 성공) 참고, 협력 강화 필요 · 2026년 이전 제도 개선 후 동등성 평가 재신청 및 글로벌 해양포유류 보호 정책 관련 네트워크 구축 제안
업무①	9.7.(일) 한-미 정례협의회 대응 회의
수행계획	□ (오후) 한-미 정례협의회 사전 준비 회의 - 참 석 자 :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최종욱 해양관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 신범준 국제기구팀장, 김정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윤석 원양산업과 사무관, 나일강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양지나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해양경찰청) 여환승 형사와 경위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윤미경 전략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지영 통역사 - 주요 내용 · 정례협의회 개요와 의의 · 안건 검토 및 한국측 주요 논리 점검 · 미국 수석대표(Andrew Lawler) 특이사항 공유
수행결과	□ (오후) 포럼 개최 준비 회의 - 정례협의회 개요 · 배경 및 목적: 2019년 IUU 어업국 지정·해제 교섭에서 한미 정례 협의 채널 제안 · 주요 논의사항: IUU 어업 방지,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현안 논의, MMPA 등 미국 규제 정보 공유로 대미 수출 영향 최소화 및 협력 강화 목표 - 안건 검토 및 한국측 주요 논리 · 국내 주요 정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발전법, 원양어업 관리 정책, UNOC4(2028년 한국·칠레 공동개최) 지지 요청. 미국의 MMPA, Maritime SAFE Act 정보 공유 · IUU 어업 근절: 공해상 승선검사(HSBI) 및 해경 활동 강조, 한미 협력 MOU 논의(2025.12 UN총회 서명 제안). 한국, 항만국 조치협정(PSMA) 이행 협력 강조 · 지역수산물관리기구(RFMO): WCPFC, ICCAT, IATTC, SPRFMO, NPFC, NPAFC 논의. 참치 쿼터, 선원 인권, 해양생물 부수어획 관리 협력 · 기타 의제: FAO COFI 효율화, PSMA 역량 강화, 중앙북극해 비규제어업방지협정(CAOFA)에서 탐색 어업 규제 및 과학 연구 협력 - 미국 수석대표(Andrew Lawler) 특이사항 공유 · 트럼프 2기 NOAA 수석부차관보(2025~), 국제어업 정책, IUU 근절, 양·다자 협상 총괄 · 과거 트럼프 1기 NOAA 부차관보(2018~2020) · Abundant Life Media CEO · 정책 조율·대외 메시징형 인사로, 과학·수산 전문성보다는 협상·커뮤니케이션 강점 - 종합 평가 · 한미, IUU 어업 방지 및 해양포유류 보호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 필요 · 국제어업관리를 위한 해양수산부-NOAA MOU 체결 조속 추진 · PSMA 이행, RFMO 협업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 관리 의지 적극 표명 · 한국, UNOC4 개최 지지 요청 및 MMPA 대응 전략 구체화 필요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①	9.8.(월) 한-미 정례회의(1일차)
수행계획	□ (종일) 한-미 정례회의(1일차)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 신범준 국제기구팀장, 김정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윤석 원양산업과 사무관, 나일강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양지나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해양경찰청) 여환승 형사과 경위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윤미경 전략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지영 통역사 (NOAA) Andrew Lawler 수석 부차관보, Alexa Cole 국제어업통상 국장, Terra Lederhouse 국제어업통상 과장, Leah Fine 통상국 국제협력 전문관, Lauren Fields 통상국 국제협력 전문관, Sara Mariott 법규국 국제협력 전문관 (국무부) Deirdre Warner-Kramer 해양보전실 국장대리, Colin Brinkman 해양보전실 외무서기관, Naomi Oyler 해양보전실 외무서기관 (해양경비대) Colin Weaver 소령·국제어업과장, Siri Hakala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보법 프로그램 매니저, Mari Cullerton 시그랜트 펠로우 - 주요 내용 · 국제어업관리 현안 및 협력 방안 · RFMO 세부 안건 논의
수행결과	□ (오전) 한-미 정례회의(국제어업관리) - 불법어업 방지 및 디지털 모니터링 강화 · 한국은 불법어업 방지를 위해 어획 증명서 제도를 개정하고,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전자보고, 전자 모니터링 등)을 통해 24시간 어획량 추적 중. 2028년까지 전자 모니터링(EM) 100% 도입 목표 · EM 초기에는 휴먼 옵서버 대체로 접근했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AI 기술 발전과 병행하며 정확한 데이터 수집 필요성 확인. 2030년까지 MSC 기준 25~30% 적용, 이후 모든 원양선박에 EM 확대 예정 - 제4차 유엔 해양회의(UNOC4) 준비 · 한국은 2028년 UNOC4 개최를 목표로, 유엔 결의안을 통해 개최국 선정 추진. 미국의 지지와 협력 요청 · UNOC4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점검 및 해양 협력 강화 논의의 중요한 시점. 한국은 새로운 해양 SDG 제안 및 국제 대화 촉진 계획 - 해양포유류보호법(MMPA) 및 동등성 평가 결과 · 미국은 MMPA 동등성 평가 결과 발표. 한국의 다수 어업은 적합 판정받았으나, 일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수입 제한. 추가 자료 제출 시 재평가 가능 · 한국은 협력 채널 유지 및 기술적 논의 지속 요청, MMPA 기반 글로벌 어업 시스템 구축에 공감 - 공해상 승선검사(HSBI) 및 IUU 어업 대응 · 한국 해양경찰청은 7월 북태평양에서 3,000톤급 순찰선을 통한 HSBI 재개(17일간, 3,400해리 순찰, 5척 검사, 11건 위반 적발). 상어 지느러미 불법 채취 등 중대한 위반 단속 · 미국은 HSBI를 통해 강제노동 적발 및 RFMO 위반 보고 강화. 한국에 선박 전역(생활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구역 포함) 검사 확대 제안, 강제노동 및 불법물품 은닉 대응 강조 - 남태평양 정어리 관리 및 전자 모니터링 · 미국은 남태평양 정어리 관리 절차 도입 및 2015년 조치 대체 제안. 한국은 WCPFC와 IATTC 간 공동 관리 필요성에 동의, 중국의 과도한 어획에 대한 협력 논의 요청 · 한국은 EM 기술이 WCPFC 최소 기준 충족, 시범 프로젝트 확대 중. 2023년 13~14% 옹서버 커버리지 달성, 2026년 북태평양 가드 작전 참여 계획 - 종합 평가 · 한국과 미국은 IUU 어업 방지, 디지털 모니터링, HSBI 협력을 통해 해양 지속가능성 강화에 공감 · MOU 체결을 통해 양국 협력 구체화 및 제3국(중국 등) 문제 해결 방안 모색 필요
수행결과	□ (오후) 한-미 정례회의(RFMO 세부 안건) - 태평양 참치 관리 및 할당 · 한국, 태평양 다랑어 쿼터 부족. 할당 협상은 2025년 추가 논의 예정은 없으나 장기적 논의 필요 · 미국, Close-Kin Mark-Recapture(CKMR) 방법으로 참치 자원 풍도 확인, ICCAT SCRS 회의에서 데이터 반영에 대해 논의 예정 · 양국, 최신 데이터 기반 자원 평가 필요성 공감. 한국, SCRS 논의 지지 - ICCAT 패널4 논의 · 북대서양 황새치 예외 프로토콜 채택 예정. 청상아리 평가 미완료, EU의 원형 혹 반대 논란 지속. 한국, 원형 혹 의무화 지지(이미 안강망 지역 시행), 데이터 개선 및 보전 조치 강화 필요 · 상어 보전: 미국, 상어 관리 협력 및 한국의 공동 제안 참여 감사 - 레크리에이션 어업 관리 · 미국, 서부 참치 레크리에이션 어획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쿼터 미포함. 동부도 2026년 동일 관리. EU, 스페인·이탈리아 등 레크리에이션 어획 보고 미흡 · 한국, 지역별 관리 일관성 필요성 제기. 일본, 어민 어획(소규모 상업) 포함 방식 논의 필요 - IUU 어업 및 HSBI 강화 · ICCAT에 HSBI 도입 제안, 중국 반대 예상. 유실 어구 관리: 노르웨이·캐나다의 과도한 보고 의무 우려, 한국은 현실적 방안 선호 · 한국, 7월 북태평양 HSBI 재개(3,400해리, 5척 검사, 상어 지느러미 위반 적발). 미국, 강제노동·불법물품 단속 위해 선박 전역 검사 제안 - 주요 RFMO 어업관리 현안 · IATTC: 열대 참치 조치 연장, EM 표준 개발, 예산 문제 지속. 한국, WCPFC와 공동 관리 필요성 강조 · SPRFMO: 오징어 어업 제한 지연, EM 프레임워크 채택 희망. 투표 절차 개선 논의 · NPFC: 항구 검사 기준 채택 목표, 중국 어선 통제 강화. 바닥 어업 보호 확대 필요 · NPASC: 한국, 탈퇴 검토 중이나 미국은 협력 지속 희망. 러시아의 대규모 치어 방류(연 15억 마리)로 생태계 영향 우려, 공동 연구 제안 - 정어리 관리 및 생태계 문제 · 한국, 최근 4~5년 정어리 증가 및 사망률 상승 관찰, 원인 조사 필요. 미국, 남태평양 정어리 감소로 관리 절차 도입 제안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양국, WCPFC-IATTC 협력을 통해 중국 과도 어획 대응 및 EM 확대 논의 - 종합 평가 · 한국·미국, 참치·상어 관리, IUU 대응, HSBi 강화를 위한 협력 공감 · 제3국(중국·러시아) 문제 해결 및 생태계 지속가능성 위해 MOU 체결 등 구체적 협력 방안 모색  
업무①	9.9.(화) 한-미 정례협의회(2일차)
수행계획	□ (종일) 한-미 정례협의회(2일차) - 참 석 자 :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제협력정책관, 신범준 국제기구팀장, 김정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정윤석 원양산업과 사무관, 나일강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양지나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해양경찰청) 여환승 형사과 경위 (KMI) 정명화 수산정책연구실장, 윤미경 전략기획실 전문연구원, 김지영 통역사 (NOAA) Andrew Lawler 수석 부차관보, Alexa Cole 국제어업통상 국장, Terra Lederhouse 국제어업통상 과장, Leah Fine 통상국 국제협력 전문관, Lauren Fields 통상국 국제협력 전문관, Sara Mariott 법규국 국제협력 전문관 (국무부) Deirdre Warner-Kramer 해양보전실 국장대리, Colin Brinkman 해양보전실 외무서기관, Naomi Oyler 해양보전실 외무서기관 (해안경비대) Colin Weaver 소령·국제어업과장, Siri Hakala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보법 프로그램 매니저, Mari Cullerton 시그랜트 펠로우 - 주요 내용 · FAO 및 PSMA · MMPA 실무진 회의
수행결과	□ (오전) 한-미 정례협의회(FAO 및 PSMA) - 중앙북극해 협정 논의 · 시험 조업: 양국, 엄격한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규제 필요성 공감. COP 승인 필수. 한국 포함 8개국 동의 · 취약해양생태계(VME): VME 특성 목록 합의 필요. 특정 빙하 지역 보호 제안 · 과학 연구: 탐색 어업과 별개로 연구 강화. 동·서 북극해 동시 연구 크루즈 및 중별 연구 관심 - FAO 및 COFI 논의 · COFI: 수산관리 소위원회 신설로 의제 효율화 기대. 접근 협정 투명성 강화 및 IUU 어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업 방지 방안 논의 · 해양 쓰레기: 한국, 어구 보증금제·견인제·관리 기록부 의무화로 폐어구 관리. FAO 지침 기반 RFMO 보고 의무 강화 필요 · 항만국 조치 협정(PSMA): 한국, 작년 전략 워킹그룹 주최. 지표 개발 부진, 설문지 개선으로 이행 효과 측정 제안 - PSMA 지역 조정 회의 · 아시아 회의: 기국 책임 및 역량 강화 논의. 한국, 항만검사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도상국 교육 계획 · 중국 문제: PSMA 비준했으나 이행 미흡, 민간 항만 운영으로 허점 우려. 양국, 정보 공유 및 대응 협력 필요 - 종합 평가 · 한국·미국, 지속 가능한 어업 목표 공유. 탐색 어업 규제, VME 보호, PSMA 이행 강화 협력. 양국 정책 반영 및 신뢰 구축 지속
수행결과	□ (오후) 한-미 정례협의회(MMPA 실무진 회의) - MMPA 동등성평가 결과 공유 · 한국 14개 어업 부적합 판정(예: 트롤 어업, 낚치 자망 등). 위험 위험 등으로 인해 해양포유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2026.1.1부터 미국 수입 제한 본격 시행 · 한국,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중 - 향후 추진 일정 · 2026년 1월 1일부터 부적합 어업 재신청 가능 · 진행보고서 제출 예정 2028년경, 정확 일정 미정, 일정 확정 시 별도 공지 예정 - 수입 규제 적용 범위 및 절차 · 제3국 경유 재수출: 동등성 평가 부적합 어업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에 HTS 코드로 식별, 부적합 어업 생산 제품 금지. 동등성 평가 적합/부적합 어업 구분을 위해 세관에서 NSP/NEI 코드를 통해 관리할 예정 · 가공수산물 추적: 원료 원산지 확인 필수. 혼합/오래된 제품은 어획방법 및 어종 등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미국에서도 인정 · COA(수출확인증명서) 발급에 제한이 있는 구체 사례를 문의하면, 참고하여 검토 예정 · 미적용 어업(예: 육상 양식 낚치): COA 불필요, COA 없이도 통관 문제 없음. 그러나 자발적 제출 가능 - 시행 일정 및 지원 요청 · 적용 기준: 미국 입항일. 1.1 이전 통과 제품 면제. HTS-어구 타입 연계로 식별 · 미국은 한국에 개발도상국 증명서 시스템 지원 제안. 양국, 추가 문의 환영 및 협력 지속 합의 - 종합 평가 · MMPA 통해 해양포유류 보호 강화 공감. 한국 제도 개선 및 재신청 추진, 미국 지침 공유로 실무 협력 · 한국, 업계 교육 및 제도 보완 추진. 지속적 소통으로 규제 완화 모색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